

성과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dolescent Self-conscious Emotion, Empathy, and Forgiveness on Prosocial Behavior by Gender and Age

한 세 영(Sae-Young Ha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adolescent self-conscious emotion, empathy, forg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across gender and grade,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relations among prosocial behavior and other variables across gender and grade,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olescent self-conscious emotion, empathy, forgiveness on prosocial behavior in each gender and grade group. The subjects were 272 adolescents who were recruited by purposive sampling in the Chungbuk a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mpathy of girls was higher than that of boys. Boys showed a stronger correlation between prosocial behavior and guilt than girls. Next, boys' prosocial behavior was predicted by cognitive empathy, guilt, and pride, whereas girls' prosocial behavior was predicted by forgiveness toward others, pride,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Last, middle school students' prosocial behavior was predicted by pride and guilt, whereas that of high school students' was predicted by cognitive empathy, guilt, pride, and forgiveness toward others and the situation. In conclusion, self-conscious emotions, empathy, and forgiveness all predicted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but in different ways across gender and grade. It implies that adolescents need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grade, to promote their self-conscious emotions, moral emotions, and prosocial behavior.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 공감(empathy), 용서(forgiveness),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I. 서론

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까지 학자들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그 원인 및 결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따돌림과 괴롭힘, 비행과 일탈행동 등 사회적 문제가 된 심각한 문제행동이 높은 시기인 이유로 많은 연구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의 적응과 행복, 도덕성 등 발달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 Offer, 2013; L. Padilla-Walker, & A. Fraser, 2014).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행동인 친사회적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성발달의 긍정적 단면이며 도덕성 발달의 한 측면

* Corresponding Author : Sae-Young Ha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82-2-3277-4380, E-mail: evenhow@ewha.ac.kr

이기도 한 친사회적 행동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M. Estrada-Hollenbeck, & T. Heatherton, 1998).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되기까지 많은 변수들이 작용한다. 우선 자신과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 이루어져야하고, 다음으로 타인의 감정, 고통이나 아픔, 필요를 알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신과 타인이 처한 상황의 부정적인 느낌, 잘못된 측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라는 변인으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고자하는 행동임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자아와 자의식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주로 자아관련변수와 친사회적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해 그 근거가 제시된 바 있다(M. Caroli, & E. Sagone, 2013; A. Grant, & S. Sonnentag, 2010; H. Lee, & S. Yoo, 2011).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을 탐색하면서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 자의식적 정서를 분화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구는 그러한 자의식의 측면 중 정서적인 부분인 자의식적 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의식적 정서로 알려진 변수 중 부정적 변수는 수치심과 죄책감 등이 있으며 긍정적인 자의식의 측면으로는 자부심이나 자존감 등을 들 수 있고, 이들 변수들이 친사회적 행동과 어떠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학자들에 의해 조사되어 왔다.

자의식적 정서 중 수치심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연구를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으며, 수치심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격성 등 문제행동이나 발달의 부정적 측면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수치심은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J. Elison, C. Garofalo, & P. Velotti, 2014; S. Han, 2007;), 우울과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다(D. Shin, H. Bang, & J. Ok, 2015; E. Jung, & H. Shin, 2014). 다양한 부적응적인 측면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수치심이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인 친사회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죄책감을 느끼면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된다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죄책감이 관계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피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M. Estrada-Hollenbeck, & T. Heatherton, 1998). 그러므로 만성적이지 않다면 죄책감은 건강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는 것이다. 또 다른 국외연구에서도 죄책감을 낮게 느끼는 경우 돕는

행동을 포함한 친사회적 행동이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H. Xu, L. Bègue, & B. Bushman, 2012; H. Xu, L. Bègue, L. Sauve, & B. Bushman, 2014).

자의식적 정서 중 긍정적인 측면인 자부심에 대해서는 유사변인들과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정리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친사회적 행동의 보호 내지는 지지 요인으로 밝힌 바 있다(J. Lee, I. Chung, & J. Back, 2014). 또한 Y. Jung(2014)의 연구에서도 자부심의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존감의 영향이 또래집단의 영향보다 더 크고, 또한 자존감이 또래집단의 영향을 중재하기도 하여 사회관계의 영향보다 개인의 특성, 즉 내적 요인이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H. Kim, J. Kim, & I. Chung, 2011; K. Kim, & Y. Ha, 1998). 나아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도 있다(E. Jin, & Y. Lim, 2008).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예측하는 두 번째 변인은 공감이며, Y. Jung(2014)은 학자들이 구분하는 공감요인을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인지적 요소로 상대방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입장과 감정을 인지해내는 능력이며, 둘째는 정서적 요소로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상태를 뜻하는데 공명, 반향, 정서감염, 대리적 정서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의사소통적 요소로서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넷째는 친사회적 행동에는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요소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첫째와 둘째 내용을 공감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은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동정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고 밝힌 연구(S. Park, & S. Park, 2012), 관점취하기와 같은 인지적 공감과 공감적 관심과 같은 정서적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음을 보고한 연구(H. Cho, & M. Lee, 2010), 공감능력과 자존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한 연구(H. Kim, J. Kim, & I. Chung, 2011) 등이 그러하다. B. Jang(2000)은 공감적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고, K. Lee(2002)도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정적 상관을 밝힌 바 있다.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

감과 정서적 공감의 상관을 각각 살펴본 S. Park(1996)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을 가지지만, 정서적 공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지적 공감보다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J. Han(2000) 또한 정서적 공감의 한 측면인 공감적 관심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22.94%에 이른다고 하여 정서적 공감의 역할이 인지적 공감의 역할보다 크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인지적 이해보다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더 중요하다는 보고를 한 연구가 있다(J. Kwon, & Y. Park, 2013). Y. Jung(2014)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외연구에서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다(J. Dovidio & J. Banfield, 2015).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의 하나로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 변인은 용서이다. 실제로 용서와 친사회적 행동의 직접적인 상관을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 용서가 반사회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 Park, R. Enright, M. Essex, C. Zahn-Waxler and J. Klatt(2013)의 연구에 의하면 용서는 분노와 공격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Ö. Karaimak and B. Güloğlu(2014) 또한 용서는 분노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친사회적인 행동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거나 위로하거나 나누는 등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단일한 사회적 행동의 연속선상에서 반대의 극단점에 배치된 변수들은 아니지만, 친사회적 행동이 공격성이나 비행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행동과는 상반된 개념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과 용서의 부적 상관을 고려하면 친사회적 행동과 용서의 정적 상관을 추론할 수 있다.

용서 관련변인과 친사회성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용서나 상황용서보다는 타인용서가 친사회성과 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A. Lee, & J. Koo, 2009). 또한 Y. Lee, M. Song, and C. Kim (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용서하기에 있어서 학년과 성차가 확인되었고 친화성과 용서하기에 강한 상관을 보고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의 특성으로 용서를 연구한 M. Pejović and A. Lakić(1996)는 용서는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이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설명한 바 있다. P. Strelan(2007)의 연구에서는 정의에 대한 신념이 친사

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기반이 되며 이는 이러한 기반을 가진 이들은 용서하는 성향을 강하게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피해를 준 사람, 피해, 그리고 피해의 결과에 대한 어떤 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에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정의되는 용서의 개념을 고려할 때(L. Thompson & C. Snyder, 2003), 친사회적 행동과 용서의 유의미한 상관이 추론가능하다. 자신이나 상대방, 또는 상황으로 입은 피해나 상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한다면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나누는 행동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낮아지지만, 자신이나 상대방, 또는 상황으로 인해 입은 상처를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면 즉, 용서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 돕거나 나누는 행동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적인 상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탓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자의식적 정서와 공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들 중 다수는 성차 및 학년차가 존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먼저 친사회적 행동인 도움행동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아동보다는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고되었다(J. Han, 2012). 자의식적 정서의 일부인 자부심이나 자존감의 경우 남아가 높다는 연구(E. Hong, 2012), 여아가 높다는 연구(Shin, 1996)가 혼재하며, 죄책감과 공감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J. Han, 2012; S. Han, 2009), 자의식적 정서를 이루는 변수들이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반면 연령에 따라서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존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유의하고 그 정적인 관계의 방향도 일관되게 나타났다(E. Hong, 2012; H. Kim, J. Kim, & I. Chung, 2011). 죄책감과 공감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어 어린 연령의 아동이 청소년보다 죄책감이나 정서적 공감이 높게 나타났다(S. Han, 2009; J. Han, 2012). 그러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그 보고가 달라, 성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정적상관이 보고되었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보고가 일관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Y. Jung, 201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고 한 반면(H. Lee, 2011),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이 관련이 없다는 결과(Cho, 1997; Feshbach, 1978)를 보여 주기도 하여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에 있어 학년에 따른 차이를 재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용서와 친사회적 행동

의 관계에 대한 성과 연령에 따라 분석을 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용서와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 용서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성영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다수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이 연령별로는 아동부터 노인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직접 성과와 연령차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용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 또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정서적 요인 또는 도덕적 요인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거나, 환경적 요인과 비교하여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H. Chang, & I. Chung, 2013; S. Lee, & K. Lee, 2008; J. Shin, H. Choi, E. Suh, & J. Koo, 2013).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자의식적 정서와 공감과 용서를 포함한 도덕적 정서를 모두 함께 살펴보거나, 나아가 이들의 영향력을 성별, 연령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 시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 연령집단별로,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수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성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기초정보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변인들이 각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함양시키기 위한 지도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과 학년에 따라 자의식적 정서(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공감(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용서(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과 학년에 따라 자의식적 정서(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공감(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용서(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친사회적 행동은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성과 학년에 따라 자의식적 정서(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공감(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용서(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중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무엇이며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지역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272명이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은 135명으로 49.6%이고 여학생이 137명으로 50.4%였으며, 그 중 중학교 2학년이 141명(51.8%), 고등학교 2학년이 131명(48.2%)이었다. 진급하여 새로운 학교 체계에 적응해야하는 1학년과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입시 부담이 큰 3학년은 제외하였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6.43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3.69세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174명, 65.7%)이 고졸이하(92명, 34.3%)보다 많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134명, 50.6%)와 전문대졸 이상(131명, 49.4%)이 비슷하게 나타났다(Table 1).

2. 측정도구

친사회적 행동

Table 1. General factors of participants

(N=272)

variables	group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boys	135	49.6
	girls	137	50.4
grade	8th	141	51.8
	11th	131	48.2
age of father	less than 45	113	42.2
	over 46	155	57.8
age of mother	less than 45	187	70.0
	over 46	80	30.0
education level of father	high shchool diploma or less	92	34.3
	college degree or over	174	65.7
education level of mother	high shchool diploma or less	134	50.6
	college degree or over	131	49.4

* missing data were excluded.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가진 자발적 행동으로 협력하기, 나누기, 위로하기, 돕기, 양보하기 등을 포함한다. 측정도구로는 N. Eisenberg and P. Mussen(1989)이 사용한 이타성자기보고식 검사와 J. Rushton and R. Sorrentino(1981)의 이타성자기보고식 검사를 기초로 S. Lee(2001)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협력하기, 나누기, 위로하기, 돕기, 양보하기 등을 내용으로 하며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간다.”, “나는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한 친구를 도와서 재미없거나 어려운 일(청소, 심부름 등)을 한 적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응답자들의 자기보고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는 .89였다.

자의식적 정서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은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 척도(J. Tangney & R. Dearing, 2002)를 S. Han(2007)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치심 5문항(“나는 내가 가치 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낀다” 등), 죄책감 5문항(“나는 내가 한 나쁜 일에 대해 항상 생각한다” 등), 자부심 5문항(“나는 할 수 있다고 느끼고, 내가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다” 등)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변인 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수치심 .80, 죄책감 .82, 자부심 .83이었다.

공감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 28문항을 사용한 H. Kim(2011)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공감의 하위변인으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있다.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과 상상하는 능력 등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1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나는 친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 봄으로써 친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등),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감정이나 고통을 함께 느끼는지를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따뜻한 염려의 느낌을 가진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공감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문항간의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인지적 공감은 .62이며, 정서적 공감은 .60 (전체 .73)으로 나타났다.

용서

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L. Thompson and C. Snyder(2003)이 개발한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을 H. Lee, Y. Lee, S. Cho, and J. Nam (2008)이 번역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L. Thompson and C. Snyder(2003)는 용서를 피해를 준 사람, 피해, 그리고 피해의 결과에 대한 어떤 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에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대상의 범위는 자신, 타인, 그리고 상황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기용서는 자기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바뀌는 것, 타인용서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나 상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바뀌는 것, 상황용서는 발생한 어떤 상황으로부터 받은 피해나 상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자기용서(“안 좋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는 자신을 무척 책망하게 된다”), 타인용서(“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사람을 끊임없이 책망하게 된다”) 그리고 상황용서(“나는 살면서 겪었던 안 좋은 상황과도 결국에는 화해하고 살 것이다”)를 평가하는 3개의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3문항의 긍정적 진술문과 3문항의 용서불가를 평가하는 부정적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평정 척도로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4점)’로 측정되었다. 부정 진술문에 대해 역채점하여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계수는 .74, .75, .77 (전체 .76)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충북지역의 1개의 중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를 통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에 의해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되었고, 교실에서 약 20분에 걸쳐 작성한 뒤에 다시 회수되었다. 질문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을 것이며 혹시 질문지 조사 참여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불참해도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사실

을 담임교사를 통해 공지하였다. 총 29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질문지 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로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우선 남녀집단, 그리고 학년집단 간의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집단에서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인들의 분포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 친사회적 행동의 각 하위변인별 분포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자의식적 정서 중 수치심은 평균이 낮은 편이며 이에 비해 죄책감과 자부심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정서적 공감에 비해 인지적 공감의 평균이 다소 높으나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용서 중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의 평균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4점 척도를 사용했음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수치심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중앙치를 넘는 평균을 보였다.

2. 성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 간의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

Table 2. Basic statistics of variables

(N=272)

Variables		Mean	SD
Self-conscious emotion	Shame	1.92	.62
	Guilt	2.50	.46
	Pride	2.92	.50
Empathy	Cognitive empathy	2.84	.32
	Emotional empathy	2.69	.29
Forgiveness	Forgiveness toward self	2.53	.28
	Forgiveness toward others	2.58	.40
	Forgiveness toward situations	2.61	.39
Prosocial behavior		2.80	.37

Table 3. Difference of self-conscious emotions, empathy, forg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in boys and girls, and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남학생 (n=135)		여학생 (n=137)		t	중학생 (n=141)		고등학생 (n=131)		t
		M(SD)	M(SD)	M(SD)	M(SD)						
Self-conscious emotion	Shame	1.93	(.62)	1.91	(.62)	.42	1.89	(.61)	1.96	(.64)	-.97
	Guilt	2.47	(.48)	2.52	(.44)	-.96	2.48	(.51)	2.51	(.41)	-.43
	Pride	2.96	(.51)	2.88	(.48)	1.23	2.97	(.50)	2.87	(.49)	1.60
Empathy	Cognitive empathy	2.78	(.34)	2.89	(.29)	-2.65**	2.86	(.32)	2.80	(.31)	1.56
	Emotional empathy	2.62	(.28)	2.76	(.27)	-3.96***	2.69	(.30)	2.69	(.27)	-.13
Forgiveness	Forgiveness toward self	2.55	(.27)	2.50	(.29)	1.24	2.52	(.27)	2.53	(.29)	-.35
	Forgiveness toward others	2.57	(.39)	2.58	(.41)	-.34	2.60	(.42)	2.55	(.37)	1.15
	Forgiveness toward situations	2.60	(.40)	2.63	(.37)	-.77	2.62	(.40)	2.60	(.38)	.42
Prosocial behavior		2.76	(.39)	2.83	(.35)	-1.53	2.82	(.34)	2.77	(.40)	1.29

** $p < .01$, *** $p < .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main variables in boys and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difference between correlations

	Shame	Guilt	Pride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Forgiveness toward self	Forgiveness toward others	Forgiveness toward situations	Prosocial behavior
Shame	1	.48*** (.50***)	-.67*** (-.59***)	-.21* (-.02)	.10 (.09)	-.22* (-.31***)	.01 (-.30***)	-.30*** (-.42***)	-.13 (-.04)
Guilt	.46*** (.52***)	1	-.29*** (-.13)	.13 (.21*)	.32*** (.39***)	-.32*** (-.46***)	-.01 (-.17*)	-.26** (-.27**)	.18* (.30***)
Pride	-.55*** (-.72***)	-.09 (-.37)	1	.23** (.23**)	-.12 (-.03)	.17 (.29***)	-.01 (.38***)	.27** (.37***)	.33*** (.31***)
Cognitive empathy	-.17 (-.07)	.06 (.27**)	.32*** (.18*)	1	.36 (.35***)	-.05 (-.05)	.26 ** (.27**)	.17* (.05)	.34 *** (.52***)
Emotional empathy	.17* (.04)	.37*** (.31***)	-.14 (.03)	.36*** (.30***)	1	-.21* (-.23**)	.11 (-.08)	.07 (-.15)	.24 ** (.31***)
Forgiveness toward self	-.18* (-.35***)	-.39*** (-.36***)	.15 (.29***)	.02 (-.06)	-.22** (-.19*)	1	.15 (.26**)	.22** (.27**)	.03 (-.10)
Forgiveness toward others	-.19* (-.09)	-.15 (-.01)	.23** (.13)	.35*** (.19*)	.17 (-.11)	.16 (.23**)	1	.35*** (.47***)	.25** (.32***)
Forgiveness toward situations	-.35*** (-.36***)	-.27** (-.27**)	.32*** (.32***)	.10 (.12)	.01 (-.09)	.11 (.39***)	.41*** (.39***)	1	.22** (.21*)
Prosocial behavior	-.04 (-.14)	.33*** (.10)	.39*** (.27**)	.48*** (.36***)	.25** (.26**)	-.11 (.04)	.24** (.34***)	.22** (.20*)	1

* $p < .05$, ** $p < .01$, *** $p < .001$

대각선 아래는 남(여)

대각선 위는 중학생(고등학생)

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자의식적 정서와 용서, 친사회적 행동은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인지적 공감($t=-2.65, p<.01$)과 정서적 공감($t=-3.96, p<.001$)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 수준은 남학생($M=2.78, SD=.34$)보다 여학생($M=2.89, SD=.29$)이 더 높았으며, 정서적 공감수준도 남학생($M=2.62, SD=.28$)보다 여학생($M=2.76, SD=.27$)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3. 성과 학년에 따른 학년별 청소년의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의 친사회적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주요변인들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자부심,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타인 용서, 상황용서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인 결과였다. 단, 여학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죄책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의식적 정서와 타인용서와의 관계도 중학생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고등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이에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도 성별,

학년별,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성과 학년에 따라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청소년의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친사회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은 1.001-2.238 사이로 모두 3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성에 따른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는 자의식적 정서인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공감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용서의 세 하위변인인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를 투입하였다. 단계별 변인투입의 순서는 두 가지 근거를 통해 정해졌다. 첫째,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of adolescent self-conscious emotions, empathy, and forgiveness on Prosocial behavior in boys and girls

		Prosocial behavior					
		boys			girls		
		step 1(β)	step 2 (β)	step 3 (β)	step 1 (β)	step 2 (β)	step 3(β)
Self-conscious emotion	Shame	.05	.08	.11	.02	.06	.07
	Guilt	.35***	.29***	.33***	.24*	.07	.06
	Pride	.45***	.35***	.30***	.36**	.28*	.25*
Empathy	Cognitive empathy		.35***	.35***		.27**	.20*
	Emotional empathy		.06	.01		.15	.21*
Forgiveness	Forgiveness toward self			-.02			-.01
	Forgiveness toward others			.03			.28***
	Forgiveness toward situations			.20**			.05
	R^2	.27	.41	.45	.12	.21	.30
	ΔR^2		.14	.04		.09	.09
	F	17.39***	17.71***	12.37***	5.86***	6.95***	6.58***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of adolescent self-conscious emotions, empathy, and forgiveness on Prosocial behavior in 8th and 11th grade

		Prosocial behavior					
		8th			11th		
		step 1(β)	step 2(β)	step 3 (β)	step 1 (β)	step 2 (β)	step 3 (β)
Self-conscious emotion	Shame	.02	.09	.09	-.01	.01	.07
	Guilt	.30***	.20*	.25**	.35***	.21*	.21*
	Pride	.41***	.40***	.38***	.36***	.26**	.21*
Empathy	Cognitive empathy		.21*	.16		.38***	.33***
	Emotional empathy		.14	.12		.10	.13
Forgiveness	Forgiveness toward self			.06			-.09
	Forgiveness toward others			.14			.17*
	Forgiveness toward situations			.12			.16*
	R^2	.19	.26	.31	.22	.38	.44
	ΔR^2		.07	.05		.16	.06
	F	10.31***	9.24***	7.16***	11.69***	15.02***	11.68***

* $p < .05$, ** $p < .01$, *** $p < .001$

더 많은 선행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과의 상관이 밝혀진 변수를 먼저 투입하여 통제하고 다음 투입되는 변수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게 되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을 알아야 할 필요가 더 있는 변수로 정하였다. 즉, 자의식적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기에 이 변수의 효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동시에 통제하고, 다음으로 연구가 적게 이루어진 공감을 2단계 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2단계로 투입된 변수가 효과가 확인됨과 동시에 통제되기도 하였으므로 자의식적 정서와 공감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 용서의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에서 가장 연구가 적게 이루어진 용서를 투입하였다. 변수투입순서의 두 번째 기준은, 타인이나 환경과의 관계보다는 좀 더 자아와 내면에 가까운 요소인 경우에 먼저 투입하였다. 자의식적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밝혀졌으며, 자아의 가장 내적인 요소로 판단되었기에 1단계에 투입하였고,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가 검증되고 자아와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인 공감이 투입되었으며, 가장 선행연구가 적고 타인과의 상황으로까지 그 인식이 확장되는 변수인 용서를 마지막

단계에서 투입하였다. 남녀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자의식적 정서 변인의 투입에 의한 설명력은 27%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공감 변인의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4%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2단계 모델의 총 설명력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용서 변인 투입으로 인한 설명력 증가는 4%이며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의 총 설명력은 45%이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인지적 공감, 죄책감, 자부심, 상황용서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는 죄책감과 자부심이 크고 인지적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상황에 대한 용서를 많이 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자의식적 정서 변인의 투입에 의한 설명력은 12%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공감 변인의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9%로 나타나 2단계 모델의 총 설명력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용서 변인 투입으로 인한 설명력 증가는 9%이며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의 총 설명력은 30%이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타인용서, 자부심,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는 타인에 대한 용서를 많이 할수록, 자부심이 클수록, 정서적 공감수준과 인지적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에 따른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중학생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자의식적 정서 변인의 투입에 의한 설명력은 19%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공감 변인의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7%로 나타났고, 2단계 모델의 총 설명력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용서 변인 투입으로 인한 설명력 증가는 5%이며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의 총 설명력은 31%이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자부심, 죄책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은 자부심과 죄책감이 클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자의식적 정서 변인의 투입에 의한 설명력은 22%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공감 변인의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6%로 나타났고, 2단계 모델의 총 설명력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

계에서 용서 변인 투입으로 인한 설명력 증가는 6%이며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의 총 설명력은 44%이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인지적 공감, 자부심, 죄책감, 타인용서, 상황용서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은 인지적 공감능력, 자부심과 죄책감이 클수록, 타인용서와 상황용서를 많이 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 도덕성과 사회성 발달영역의 한 지표로 꼽히는 친사회적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및 관련변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변인을 파악하여 문제행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기 연구에서 부족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간, 학년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과 자의식적 정서 및 용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감의 두 하위변인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유의한 성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차는 여학생의 공감수준이 남학생의 그것보다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S. Han, 2009; J. Han, 2012)의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과정과 능력으로, 남학생보다 대인관계에 더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대인관계지향성이 높은 여학생에게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감정의 공유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본 연구에서 두 영역 모두 성차를 보임으로써 여학생이 단순히 정서의 공유능력만 높은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취해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가 또래관계와 같은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상상의 관중이나 개인적 우화와 같은 자기중심성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함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인 대인관계지향성과 자기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공감이 남녀학생에게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죄책감이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결과와 달리 성차가 나타나

지 않아, 후속연구에서 다시 한번 성차를 분석하여 재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가 공감, 죄책감, 친사회적 행동의 연령차(S. Han, 2009; J. Han, 2012)를 보고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의 연령 집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동집단과 중학생인 청소년집단을 비교하거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세 집단을 비교하여 유의한 연령차를 보였고, 사후검증결과,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을 비교하여 청소년 중기와 후기를 비교하였기에 유의한 학년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도덕적 정서와 행동의 큰 차이가 일어나며, 중기에서 후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즉, 청소년기 내에서도 학년별로 그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은 자부심 및 죄책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도 정적상관을, 용서 변인 중 타인용서와 상황용서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학생집단만이 죄책감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의식적 정서와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느낌이 타인에 대한 행동으로 확장되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과 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 요소이며 타인과의 관계는 자아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 수치심과 긍정적 평가와 느낌인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및 평가, 성찰을 의미하는 죄책감은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평가, 느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느낌인 자부심이 높아야 타인에 대한 친절과 도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부심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Y. Jung(2014)의 연구결과와 자존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지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 J. Lee, I. Chung, and J. Back(2014)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이 학습이나 모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한 자아를 바탕으로 했을 때 더욱 잘 이뤄진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강할수록 즉 스스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만족스러워할수록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져 양보, 도움 등 베풀거나 관대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자아에 대한 평가와 느낌, 인식이 타인에게로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반대로 수치심은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

내지 않았다. 즉, 수치심과 자부심이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 하는 것파 자랑스러워 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서로 반대방향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상관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자부심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해서 자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 수치심이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자부심을 고양시켜야하지만 수치심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수치심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J. Elison, C. Garofalo, & P. Velotti, 2014), 친사회성과 같은 긍정적 행동발달과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의 요소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결과이다.

죄책감은 자아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라는 점에서 수치심이나 자부심과 차별화되는 자의식적 정서이다.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 속고하고 후회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자아 전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적 자아가 적정수준 이상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자신이 그 이상적 자아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후회의 감정인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죄책감이 강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죄책감이 낮으면 친사회적 행동 또한 적어진다고 한 H. Xu, L. Bègue and B. Bushman(2012)의 연구, H. Xu, L. Bègue, L. Sauve and B. Bushman(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평소 도덕적 자아상과 도덕적 기준이 높은 청소년이 죄책감이 높으며, 따라서 본인의 높은 도덕적 기준과 이상적 자아수준에 따라 타인에 대해 베풀고, 양보하고, 나누고, 돕는 친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회귀분석 결과 상대적 영향력과 함께 논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자아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자아의 어떤 측면이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에 도움이 될지를 면밀히

게 살피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친사회적 행동과 강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다. 인지적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즉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잘 이해하고 상상할수록, 또한 정서적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즉, 상대방의 정서를 공명하고 대리체험 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J. Dovidio and J. Banfield(2015)의 연구, S. Park and S. Park(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할수록 그를 돕거나 나누고 베푸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다수의 경험적 연구의 공통적 결과라 볼 수 있다.

자의식적 정서가 자신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고 공감이 타인의 관점과 정서에 대한 이해와 공유인 반면, 용서는 그 대상이 자신이나 타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자신과 타인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상처를 소화하고 극복할 뿐 아니라 사람이 아닌 상황으로 인한 고민과 상처에 대한 극복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용서 중 자기용서를 제외한 타인용서와 상황용서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본 연구결과는 타인과 상황으로 인해 입은 상처를 스스로 잘 수용하고 극복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상처를 이기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돕고 나누는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Pejović and Lakić(1996)의 연구, Y. Lee, M. Song, and C. Kim(201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친사회적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변수는 수치심과 자기용서로, 두 변수 모두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느낌이며, 자기용서는 자신의 잘못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극복과 수용을 나타내는데 이 두 변수 모두 자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진 변수이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이 자아의 긍정적 측면인 자부심이나, 타인의 관점이나 정서에 대한 이해와 공유인 공감, 또는 타인이나 상황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수용인 타인용서, 상황용서와는 유의한 상관이 있지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수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죄책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나 이는 자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반면 자기용서나 수치심은 자아 전반에 대한 인식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하며, 친사회적 행동의 함양을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된 구체적 행동에 대한 반성은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셋째, 연구문제 3을 분석한 결과, 각 집단별로 변수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다르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남녀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 남학생은 죄책감, 자부심, 인지적 공감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용서변인 중에서는 상황용서의 영향을 받았으나 여학생은 용서변인 중 타인용서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자부심,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으로부터는 유사한 크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용서보다는 자의식적 정서와 인지적 공감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비해 여학생은 용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점이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정신적 작용과 과정이 남녀학생 사이에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는데 남학생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느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학생은 사람 뿐 아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수용과 용서가 남학생보다 더 큰 비중으로 작용하여 친사회적인 행동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자의식적 정서나 공감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온 상황에 대한 평가는 아니므로, 용서가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나 결과를 제공한 원인이나 대상에 대한 수용과 극복이라면, 여학생이 친사회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타인과 상황에 대한 그러한 수용과 극복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용서변인 중에서도 남학생은 상황에 대한 용서가 중요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용서보다는 맥락이나 상황에 치중하는데 비해 여학생에게는 대인용서와 정서적 공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이 대인관계지향적인 변수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학생은 죄책감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 여학생은 죄책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타인의 잘못에 대한 용서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차이이다. 이는 상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친사회적 행동을 형성함에 있어 남학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더 필요한 반면, 여학생은 타인의 잘못으로부터 입은 상처를 극복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동기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친사회성에 대한 설명력이 여학생의 그것보다 15% 이상 크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자의식적 정서와 공감과 용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 타인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함께 작용하는 정신의 영역이다. 타인에 대해 너그럽고 관대하며 베풀고 돕는 친사회적 행동은, 이러한 도덕적인 특성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과 느낌 및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느낌과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을 남학생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의 수준이나 빈도가 남학생보다 낮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자의식적 정서, 용서, 친사회적 행동의 수준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남녀학생은 공감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내지만, 단지 자의식적 정서 및 도덕적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남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난 것뿐이다. 여학생의 경우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 이외의 다른 변수에 의해 친사회적 행동이 예측되는 부분이 좀 더 존재할 것으로 유추되며, 남학생은 친사회적 행동을 형성함에 있어 자의식적 정서, 공감과 용서의 역할이 여학생의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집단을 살펴보면 모델 전체의 설명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1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을 형성하는데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의 비중이 크지만, 상대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등학생에게는 공감과 용서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에게는 자의식적 정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의 중학생에게 자의식적 정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청소년기 내에서도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연령의 증가와 함께 고등학생 시기에는 자의식적 정서 뿐 아니라 인지적 공감과 타인용서 및 상황용서의 영향을 받아서 친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에 대한 탐색이 막 시작되는 중학생 시기를 벗어나면 자의식적 정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타인에 시각을 이해하고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입은 상처에 대한 해석과 극복 또한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에는 특히 자부심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자아에 대한 탐색과 성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학업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인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야 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부심이 낮으면 타인에 대한 너그움과 관용과 친절이 손상된다는 것을 뜻하며,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중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자부심을 키우는 과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영역 중 정서적인 영역인 자의식적 정서, 공감, 용서를 통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자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에 관련된 수치심과 자기용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부심과 행동에 대한 반성인 죄책감, 타인에의 공감과 타인과 상황에 대한 용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남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는 인지적 공감과 죄책감이 중요한 반면 여학생에게는 타인에 대한 용서와 자부심이 더 중요했으며, 중학생에게는 자부심이 중요한 반면 고등학생에게는 인지적 공감과 자의식적 정서 및 용서가 비슷한 무게의 중요도를 보였다는 성별 차이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발견한 것도 의미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척도의 신뢰도는 수용가능하나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문화에 적합하게 공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변수간의 관계가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게서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중2 집단과 고2 집단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발달적 변화 또는 발달적 흐름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를 발달적 변화나 흐름으로 결론짓기 위해서는 연령별 또는 학년별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면적 요소 중 정서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비록 공감 중 인지적 공감이 포함되었지만 이 또한 공감의 영역이라 정서적인 측면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을 분석하여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Caroli, M. E. D., & Sagone, E. (2013). Self-efficacy and prosocial tendencies in Italian adolescents.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2, 239-245.
- Chang, H. L., & Chung, I. J. (2013).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mediated by self-esteem. *Korean*

-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0, 33-61.
- Cho, E. (1997).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Korea: The relation to social cognition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5(5), 219-238.
- Cho, H. I., & Lee, M. H. (2010).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1), 140-159.
- Dovidio, J. F., & Banfield, J. C. (2015).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In N. J., Smelser & P. B. Balte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Second Edition)*. (pp. 216-220). Elsevier Science Ltd, Oxford.
- Eisenberg, N., & Mussen, P.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ison, J., Garofalo, C., & Velotti, P. (2014). Shame and aggress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4), 447-453.
- Estrada-Hollenbeck, M., & Heatherton, T.F. (1998). Avoiding and alleviating guilt through prosocial behavior. In J. Bybee.(Ed.). *Guilt and Children* (pp. 215-231). Elsevier Inc.
- Feshbach, N. D. (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s in children. In B. A. Maher(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Vol.8)*. New Work: Academic Press.
- Grant, A. M., & Sonnentag, S. (2010). Doing good buffers against feeling bad: Prosocial impact compensates for negative task and self-evalu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1(1), 13-22.
- Han, J. (2000).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an, J. Y.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moral emotion and helping behavior: focused on empathy, guilt and gra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Han, S. Y. (2007). The effects of children's shame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on peer pressur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7), 119-130.
- Han, S. Y. (2009). Guilt-proneness, empathy, and guil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6(3), 65-89.
- Han, S. Y. (2010).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h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aggression in bully and bully-victim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1), 125-143.
- Hong, E. H. (2012). *Effects of young children's self-esteem on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Seoul, Korea.
- Hur, M. (1997). A study for the inductive discipline technique of developing empathy in rearing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1(1), 51-69.
- Jang, B. (2000). *The effects of attribution and empathic emotion on the prosocial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Jin, E. S., & Lim, Y. S. (2008).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eer pressure and parents monitoring on prosocial behavi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youth activit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4), 27-47.
- Jung, E. Y., & Shin, H. C. (2014). The influences of shame-inducing experiences on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1), 183-194.
- Jung, Y. W. (2014). *A study on the prosocial behavior in adolescent: focused on motivation, psychological experiences from helping, and empath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angnam University, Seoul, Korea.
- Karairmak, Ö., & Güloğlu, B. (2014). *Forgiveness and PTSD among veterans: the mediating role of anger and negative affect*. *Psychiatry Research*, 219(3), 536-542.
- Kim, H. (2011). *(The) effects of parental empathy on the adolescent's empathy, self-esteem, parent-child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L., Kim, J. H., & Chung, I. J. (2011). The effects of peer group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peer influence model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 Welfare*, 36, 261-288.
- Kim, K., & Ha, Y. (1998). The effects of socialization on moral behavior(prosocial & rule violation acts) among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6(2), 5-34.
- Kwon, J. H., & Park, Y. S. (2013). Effects of understanding of mind and empathy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the dictator gam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117-138.
- Lee, K. (200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Y. (2011).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mpathy, self-esteem, personality traits and prosocial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 Lee, S. J. (200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A. R., & Koo, J. S.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personality: who forgives themselves, others, and situa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3), 89-105.
- Lee, S., & Lee, K. (2008). Correlates of prosocial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1-12.
- Lee, H., & Yoo, S. (2011). The influence of empathy, self-esteem, and personal values on prosoci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7, 33-70.
- Lee, J. Y., Chung, I. J., & Back, J. L. (2014).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redictor variables of youth's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7, 125-155.
- Lee, Y. S., Song, M. K., & Kim, C. S. (2011). A study on forgiveness determinants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173-195.
- Lee, H., Lee, Y., Cho, S., & Nam, J. (2008).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Seoul; Hakjisa.
- Lopez, S. J., & Snyder, C. R. (2008).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Offer, S. (2013).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altim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emotional well-being using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Journal of Adolescence*, 36(3), 577-585.
- Padilla-Walker, L. M., & Frase, A. M. (2014). How much is it going to cost me? Bidirectional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moral personality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37(7), 993-1001.
- Park, J., Enright, R. D., Essex, M. J., Zahn-Waxler, C., & Klatt, J. S. (2013). Forgiveness intervention for female South Korean adolescent aggressive victi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268-276.
- Park, S.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5(5), 143-166.
- Park, S. Y., & Park, S. Y. (2012).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individualism-collectivism cultural disposition and prosoci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85-106.
- Pejović, M. M., & Lakić, A. (1996). Forgiveness: An comparison between prosocial and aggressive children. *European Psychiatry*, 11(4), 302-302.
- Rushton, J. P., & Sorrentino, R. M. (1981).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social,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Hillside: Lawrence elbaum associates.
- Shin, K. (1996). *The difference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children's body-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Shin, D. W., Bang, H. J., & Ok, J. (2015). The relations among shame/guilt-proneness, response style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63-89.
- Shin, J., Choi, H., Suh, E., & Koo, J. (2013). Do happy teenagers become good citizens? Positive affect builds prosocial perspectives and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7(3), 1-21.
- Strelan, P. (2007). The prosocial, adaptive qualities of just world beliefs: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881-890.
- Tangney, J. P., & Dearing, R. (2002). *Shame and guil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M. C. Lopez, S. J., & Snyder, C. 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Xu, H., Bègue, L., & Bushman, B. J. (2012). Too fatigued to care: Ego depletion, guilt,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5), 1183-1186.

Xu, H., Bègue, L., Sauve, L., & Bushman, B. J. (2014). Sweetened blood sweetens behavior. Ego depletion, glucose, guilt, and prosocial behavior. *Appetite*, *81*, 8-11.

- Received: August 10. 2015
- Revised: September 28. 2015
- Accepted: September 30. 2015